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신체질량지수가 여고생 및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ss Media,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and BMI on Fema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Eating Behavior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 수 김 정 민*
박사과정 한 근 희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Min
Doctoral Course : Han, Guen-H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ss media, the tendency for young women to make body comparisons, and the BMI of fema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on their attitudes about eating. Participants were 392 high school students from Gyeonggi Province and 391 college students from Seoul, Gyeonggi and Chung-nam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Cronbach's α,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ile mass media influence differed by grade,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and attitude toward eating did not differ by grade. 2) Mass media influence,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and attitude toward eating differed by BMI. 3) Mass media pressure, 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and BMI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eating. 4)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s media and attitudes toward eating.

▲주요어(Key Words) : 섭식태도(eating behavior), 대중매체(mass media), 외모 비교(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Ⅰ. 서 론

최근 여성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일본, 인도 등 많은 문화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Jones & Buckingham,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건복지부(2004)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상 체중의 여성 56.8%가 자신의 체형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66.1%가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여고생의 50%, 여대생의 64%가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 주 저 자 : 김 정 민(E-mail : jmkim122@mju.ac.kr)

있으며, 저체중의 33.2%, 정상체중의 58.2%가 이에 해당되었다(문화일보, 2003).

이러한 추세는 체형에 대한 과도한 불만 혹은 관심, 마르고 싶은 욕구 등이 섭식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Polivy & Herman, 2004), 섭식장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섭식장애는 신체상(body image)의 문제(예, 마르고 싶은 과도한 욕구,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그에 따른 염려), 섭식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예, 섭식 제한, 폭식), 극단적인 체중 조절 행위(예, 강박적 운동, 고의적 구토, 하제 등의 사용)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러한 섭식장애는 비교적 뚜렷한 성차를 보여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많이 보고되며(Wittchen & Jacobi, 2005),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Hudson et al., 2005; Striegel-Moore et al., 2005).

최근 섭식장애의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Durkin & Paxton, 2002; Harrison, 2000; Smolak et al., 2001; Stice & Shaw, 2002; Thompson & Stice, 2001). 이러한 접근은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를 기초로 하고 있다. Festinger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 의견, 능력, 외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를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부재 시 타인들과 자기를 비교함으로써 자기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사회 비교는 자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에 따른 정서 및 행동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외모에 대한 사회 비교의 대상 범주는 크게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모델 등의 인물들과 실제 주변의 타인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Stice, 2002; Thompson et al., 1999; Thompson & Stice, 2001). 이들 연구들은 대중매체가 '지나치게 마른 것'을 이상적인 것(thin ideal)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체상의 왜곡된 지각, 섭식 거부, 폭식 등의 섭식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을 조사한 초기 연구들의 경우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양과 섭식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Anderson et al., 2001; Groesz et al., 2002; Harrison, 2000).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대중매체의 활용이 매우 광범위해짐에 따라 개개인이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실제 매체 노출 수준의 개인차는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동일한 양의 매체 노출에 접하는 경우에도 모두 섭식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대중매체를 수용하는 태도 혹은 성향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이다(Heinberg et al., 1995; Thompson et al.,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란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이미지나 내용을 수용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단순히 외모 또는 '마른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인식(awareness)과 그 기준이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내면화(internal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 결과 특히 내면화는 섭식문제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드러났다(Stice & Shaw, 2002; Thompson & Stice, 2001).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화하는 기준이나 가치의 특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여성의 이상적인 체형으로 마른 것(thinness)과 더불어 운동선수와 같은 근육질(athlete)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근육 개발이나 몸매 만들기(fitness)를 겨냥한 광고나 잡지의 비율이 패션 관련 광고나 잡지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et al., 1999). 이러한 추세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다이어트와 같은 체중 조절 행위 뿐 아니라 근육 개발 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부추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Field et al.,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마른 것 혹은 근육질에 대한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각각 섭식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화 외에도 특정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압력(pressures)이나 대중매체가 특정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는 주요 출처인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Levine et al., 1994; Thompson et al., 1999). 오늘날 대중매체의 홍수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게 특정 내용이나 기준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욱 빈번해졌다. 또한 대중매체의 접근 용이성은 개인 혹은 집단이 다양한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섭식태도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hompson 등(2004)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3(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3; SATAQ-3)을 사용하여 일반적 외모에 대한 내면화, 근육질 외모에 대한 내면화, 대중매체로부터 받는 압력, 그리고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른 섭식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외모에 대한 비교는 반드시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 비교의 또 다른 대상 범주는 실제 주변의 타인들이 될 수 있다. 실제 몇몇 연구들은 외모에 대한 비교가 TV나 잡지에 등장하는 모델이 아닌 또래 등의 주변 타인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Lin & Kulik, 2002; Wheeler & Miyake, 1992). 특히 청소년기에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 가치 또는 행동의 준거가 되므로(Furman & Buhrmester, 1992) 외모 역시 주변 또래와의 비교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중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주변 또래들과 빈번한 비교를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Striegel-Moore et al., 198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변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외모에 대한 자존감, 신체불만족,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ison et al., 2004). 그러나 주변 타인과의 외모 비교와 섭식 거부, 폭식, 신체불만족 등 섭식 문제의 여러 유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외모 비교와 주변 타인들과의 외모 비교가 각각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더욱이 실제 주변 타인들과의 외모 비교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대상들(universalistic targets)과의 비교에 의해 설정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TV나 잡지의 연예인들의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은 경우 주변 타인들과의 빈번한 외모 비교는 목표를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을 성취하려는 동기 수준을 증가시키게 되어 다이어트와 같은 구체적인 체중 조절 행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인은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된 신체질량지수(BMI)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들이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며(Henderson-King & Henderson-King, 1997), 신체불만족이 높고(Tiggemann & Lynch, 2001), 체중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Tiggemann & McGil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변인들과 함께 BMI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신체질량지수가 여고생 및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는 학년과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신체질량지수가 여고생과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중매체가 여고생과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 소재 1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400명과 서울, 경기 및 충남 소재 8개 대학교 1학년 여학생 40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78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학년과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BMI에 따른 체중범위는 각 연령별 지표에 따라 BMI<16.3~17.9는 저체중, 16.3~17.9≤BMI≤24~26은 정상체중, 24~26≤BMI≤28.1~31은 과체중, 28.1~31≤BMI는 비만으로 분류하였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여고생의 경우 저체중이 24명(6.1%), 정상체중이 333명(84.3%), 과체중이 31명(7.8%), 비만이 4명(1.0%)이었고, 여대생의 경우 저체중이 77명(19.6%), 정상체중이 298명(76.0%), 과체중이 16명(4.1%)으로 나타났다. (단, 비만군은 그 수가 매우 적어(n=4) 과체중군에 포함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체중범위	여고생		여대생		전체	
	n	%	n	%	n	%
저체중군	24	6.1	77	19.6	101	12.8
정상체중군	333	84.3	298	76.0	631	80.2
과체중군	31	7.8	16	4.1	47	6.0
비만군	4	1.0	-	-	4	.5
	392	99.2	391	99.7	783	100.0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6월 4일 여고생 4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실시 과정 중 문항의 이해나 질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비조사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고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 및 연구자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으며 담임교사 및 연구자의 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총 800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783부가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소요 시간은 약 20~25분이었다.

3. 연구도구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3: SATAQ-3, Thompson et al., 2004)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내면화-G(Internalization-General)(예, '나는 내 외모를 TV와 영화 스타들과 비교한다' 등), 내면화-A(Internalization-Athlete)(예, '나는 스포츠 선수들과 내 몸을 비교한다' 등), 대중매체의 압력(Pressures)(예, 나는 TV와 잡지로부터 날씬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꼈다' 등), 대중매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출처임을 묻는 정보(Information)(예, 'TV광고는 패션에 관한 혹은 매력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등)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내면화, 압력, 정보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2) 외모 비교 척도

외모 비교 척도(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Tiggemann & McGill, 2004)는 Thompson 등(1991)의 외모 비교 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와 Fisher와 Thompson(1998)(Thompson et al., 1999, 재인용)의 신체 비교 척도(Body Comparison Scale)를 통합한 것으로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외모를 타인들과 비교하는 전반적인 외모 비교(예,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내 외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등)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타인들과 비교하는 특정 신체 부위 비교(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내 허벅지를 그들과 비교한다' 등)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비교가 높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섭식태도 척도

섭식태도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Garner, 1996)를 이임순(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마르고 싶은 욕구(음식물 섭취의 제한, 체중과 다이어트에 대한 몰두,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등), 체형에 대한 불만(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불만), 폭식(폭식에 대한 성향 및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4) 신체질량지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Must et al., 1991)는 자기 보고에 의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었다(㎏/m^2).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Brooks-Gunn et al., 1986; Pritchard et al., 1997; Thompson et al., 1995).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검증, One-way ANOVA, Scheffé 사후검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년과 BMI에 따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

1) 학년에 따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 태도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대중매체의 영향은 여대생의 경우 여고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2.56$, $p<.05$).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의 하위요인들 중 정보($t=-2.92$, $p<.01$), 압력($t=-2.35$, $p<.05$), 내면화A($t=-2.71$, $p<.01$)는 여대생이 여고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면화G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BMI에 따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

BMI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표 2>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변 인		여고생 (n=392)		여대생 (n=391)		t
		M	SD	M	SD	
대중매체	정보	29.59	3.50	30.27	2.94	-2.92**
	압력	23.73	5.21	24.60	5.11	-2.35*
	내면화G	29.18	3.72	29.05	3.64	.50
	내면화A	12.24	2.42	12.77	3.02	-2.71**
	대중매체	94.78	10.26	96.98	9.76	-2.56*
타인과의 외모 비교	전반적인 외모 비교	17.60	2.88	17.75	2.56	-.75
	특정 신체부위 비교	17.84	4.48	17.79	4.51	-.13
	타인과의 외모 비교	35.44	6.67	35.54	6.28	-.21
섭식태도	마르고 싶은 욕구	24.51	5.19	24.76	5.16	-.65
	폭식	17.11	5.22	17.42	4.72	-.85
	신체불만족	25.92	3.68	25.69	3.00	.95
	섭식태도	67.57	9.95	67.83	9.22	-.39

*p<.05, **p<.01

<표 3> BMI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단계		독립 변인	B	β	R^2	$\triangle R^2$	F
마르고 싶은 욕구	1	압력	.64	.64***	.41		497.89***
	2	특정 신체부위 비교	.33	.28***	.46	.05	309.82***
	3	BMI	.33	.16***	.49	.03	227.97***
	4	전반적인 외모 비교	.14	.07*	.50	.01	173.01***
폭식	1	압력	.35	.37***	.14		110.58***
신체 불만족	1	압력	.08	.13***	.02		12.69***
	2	BMI	.09	.08*	.03	.01	8.46***
섭식 태도	1	압력	1.07	.59***	.34		362.71***
	2	특정 신체부위 비교	.47	.22***	.38	.04	307.29***
	3	BMI	.53	.14***	.40	.02	149.19**

*p<.05, **p<.01, ***p<.001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섭식태도는 각각 BMI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은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3.33, p<.05), 타인과의 외모 비교 또한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9.96, p<.001). 섭식태도의 경우에는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섭식태도 문제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F=17.51, p<.001).

3)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BMI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인들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86~1.92의 범위에 속하므로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1~.92로 모두 .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0~2.03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압력(β=.59), 특정 신체 부위 비교(β=.22), BMI(β=.14)가 높을수록 섭식태도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4%로 나타났으며(F=362.71, p<.001), 특정 신체 부위 비교가 추가되어 4%가 증가한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7.29, p<.001). 이에 BMI가 추가되어 2%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40%로 나타났다(F=149.19, p<.01).

섭식태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압력(β=.64), 특정 신체 부위 비교(β=.28), BMI(β=.16), 전반적인 외모 비교(β=.07)가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1%로 나타났으며(F=497.89, p<.001), 특정 신체 부위 비교가 추가되어 5%가 증가한 46%로 나타났으며(F=309.82, p<.001),

<표 4>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BMI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 변인	B	β	R^2	$\triangle R^2$	F
마르고 싶은 욕구	1	압력	.64	.64***	.41		497.89***
	2	특정 신체부위 비교	.33	.28***	.46	.05	309.82***
	3	BMI	.33	.16***	.49	.03	227.97***
	4	전반적인 외모 비교	.14	.07*	.50	.01	173.01***
폭식	1	압력	.35	.37***	.14		110.58***
신체 불만족	1	압력	.08	.13***	.02		12.69***
	2	BMI	.09	.08*	.03	.01	8.46***
섭식 태도	1	압력	1.07	.59***	.34		362.71***
	2	특정 신체부위 비교	.47	.22***	.38	.04	307.29***
	3	BMI	.53	.14***	.40	.02	149.19**

*p<.05, **p<.01, ***p<.001

BMI가 추가되어 3%가 증가한 49%로 나타났다(F=227.97, p<.001). 이에 전반적인 외모 비교가 추가되어 1%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50%로 나타났다(F=173.01, p<.001). 또한 압력(β=.37)이 높을수록 폭식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이 폭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F=.110.58, p<.001). 한편, 압력(β=.13), BMI(β=.08)가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이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로 나타났으며(F=12.69, p<.001), BMI가 추가되어 1%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3%로 나타났다(F=8.46, p<.001).

4)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76~2.04의 범위에 속하므로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1~.92로 모두 .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0~1.86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동시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대중매체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마르고 싶은 욕구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대중매체가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60, p<.001), 대중매체가 종속변인인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β=.56, p<.001).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33, p<.001), 대중매체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β=.36, p<.001). 그러므로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대중매체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대중매체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폭식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대중매체가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60, p<.001), 대중매체가 종속변인인 폭식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β=.32, p<.001).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12, p<.01), 대중매체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β=.25, p<.001). 그러므로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대중매체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대중매체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신체불만족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대중매체가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60, p<.001), 대중매체가 종속변인인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β=.10, p<.01).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대중매체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표 5>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단 계			β	R^2	F
마르고 싶은 욕구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대중매체 → 타인과의 외모 비교	.60***	.36	399.67***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대중매체 → 마르고 싶은 욕구	.56***	.31	323.36***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대중매체 → 마르고 싶은 욕구 2) 타인과의 외모 비교 → 마르고 싶은 욕구	.36*** .33***	.38	218.84***
폭식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대중매체 → 타인과의 외모 비교	.60***	.36	399.67***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대중매체 → 폭식	.32***	.10	78.81***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대중매체 → 폭식 2) 타인과의 외모 비교 → 폭식	.25*** .12**	.11	42.98***
신체 불만족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대중매체 → 타인과의 외모 비교	.60***	.36	399.67***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대중매체 → 신체불만족	.10**	.01	7.71**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대중매체 → 신체불만족 2) 타인과의 외모 비교 → 신체불만족	.12** -.03	.01	4.01*
섭식태도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대중매체 → 타인과의 외모 비교	.60***	.11	42.98***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대중매체 → 섭식태도	.50***	.25	233.79***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대중매체 → 섭식태도 2) 타인과의 외모 비교 → 섭식태도	.34*** .27***	.30	145.32***

*p<.05, **p<.01, ***p<.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BMI가 여고생 및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타인과의 외모 비교와 섭식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의 영향 중 정보, 압력, 내면화A(운동선수 등의 근육질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여대생이 여고생에 비해 높았으나, 내면화G(일반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즉, 여대생은 여고생에 비해 외모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가 대중매체이며,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 관련 기준을 수용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압력을 더 많이 지각할 뿐 아니라, 운동선수와 같은 근육질 체형에 관한 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여고생의 경우 또래집단이 준거집단의 집단 구성원의 가치나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Furman & Buhrmester, 1992) 여대생에 비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 대중매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전달하는 특정 정보가 또래집단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될 경우 집단 구성원들이 그 정보를 따를 확률은 적을 것이다. 또한 외모와 관련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대중매체의 광고 등이 젊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Tiggemann & Mcgill, 2004) Festinger(1954)의 제안대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모델과 비슷한 연령대에 속하는 여대생들이 여고생들에 비해

대중매체의 압력을 더 많이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마른 것을 선호하는 추세는 이미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어 내면화G(일반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의 경우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육질의 체형을 원하는 추세는 아직 대중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를 위해서는 체중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요구되므로 학업의 부담이 큰 여고생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대생이 더 수용하기 쉬워 이들 간에 내면화A(운동선수 등의 근육질 외모에 대한 내면화)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 모두 BMI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와 타인과의 외모 비교 모두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정상체중군에 속하는 여성이 저체중에 속하는 여성에 비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대상 혹은 주변 타인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일이 많음을 가리킨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정상체중군이 과체중군보다 오히려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과 타인과의 외모 비교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기준이 점점 더 마른 체형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Wiseman et al., 1992) 실제 체중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위협을 느껴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과체중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과 자신의 외모 혹은 체형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오히려 비교하고자 하는 동기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자신과 유사한 조건의 대상들과의 사회적 비교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Festinger(1954)의 주장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섭식태도의 문제는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이 각각 저체중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제호준 등, 2003; 황선희 등, 1998)과 유사한 것으로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보다 섭식태도의 문제를 나타낼 위험이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체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체중과 섭식태도의 문제는 관련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즉, 과체중군이 정상체중군보다, 혹은 비만군이 과체중군보다 더 심각한 섭식문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심각한 상태의 섭식장애가 진행된 저체중군과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과체중군에 대한 관심만으로 섭식문제를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즉, 보다 적극적인 섭식장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상체중군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BMI는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 폭식, 신체불만족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 중 압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의 압력이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임을 보고한 Thompson 등(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내면화나 정보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압력이 섭식태도의 문제를 더욱 잘 예측해 줌을 가리킨다.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 비교는 정보수집, 대상 혹은 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 경험, 기준의 내면화의 순으로 진행될 때, 대중매체의 압력은 부조화 경험 단계에 해당된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이상적인 외모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정보 수집 단계나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내면화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 혹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중매체로부터 '나의 외모가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것은 일정 기간을 거쳐 이미 그러한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한 내면화 단계에 비해 덜 안정적이며, 이러한 불안정 상태는 섭식의 제한, 폭식, 심각한 신체불만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중매체의 영향에 비해 미약하기는 하나 주변 타인들과의 외모 비교 또한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섭식 제한 등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주변 인물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경향은 섭식 제한과 같은 섭식태도의 문제를 예측해 주는 반면, 폭식이나 신체불만족은 예측해 주지 못하였다. 이는 주변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실제 다이어트 시행 등의 섭식 조절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주변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전반적인 체형의 비교보다 특정 신체 부위(예, 배, 허벅지 등)를 비교하는 것이 섭식 제한행동을 더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관심이 다이어트 시행의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BMI도 폭식을 제외한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MI가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구와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BMI가 높을수록 체중에 대한 불안과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iggemann & Lynch, 2001; Tiggemann & McGill, 2004). 반면, 폭식의 경우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진단 기준에 체중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넷째,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대중매체가 신체불만족을 제외한 마르고 싶은 욕구와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가 실제 주변의 타인들과의 외모 비교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섭식 제한이나 폭식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섭식 제한이나 폭식과 같은 심각한 섭식문제의 경우 대중매체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주위의 타인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은 실제 주변 타인들 간의 비교를 초래하며 이것은 다시 개인의 구체적인 섭식 제한이나 폭식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체적인 섭식 조절 행위가 아닌 전반적인 신체불만족은 실제 주변 인물들과의 외모 비교 없이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의 영향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종합하여 볼 때, 섭식태도 문제 관련 변인들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섭식문제 고위험 집단의 일차적 선별(screening), 섭식문제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섭식문제에 관한 공중 보건 정책 결정 등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섭식문제의 잠재적 고위험 집단으로 BMI에 따른 과체중군 및 비만군과 함께 정상체중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섭식문제를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구성 시 섭식문제의 유형에 따라 각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섭식 거부 및 제한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압력에 저항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이미지의 허구성,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심리교육적(psychoeducational) 개입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예, media literacy program). 이와 더불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모델 및 주변 타인들과의 외모 비교를 감소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적 접근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에 의존하는 역기능적 신념을 바꾸는 것을 치료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최근 매체를 통한 다이어트 관련 허위 및 과장광고, 성 상품화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유전적, 발달적 변인들(예, 세로토닌, 가족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장과 체중 수치는 실제 측정 수치가 아닌 연구 대상자들의 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섭식장애 척도(EDI-2)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Garner, 1991) 일반 여고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도출된 본 연구 결과가 실제 섭식장애 임상집단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화일보(2003). "잘못된 다이어트 그만"운동 뜬다. 2003. 4. 30.

보건복지부(2004). 청소년들의 외모인식과 건강수준 실태조사. 여성정책 담당관실. 2004. 4. 7.

이임순(1997). **섭식절제가 식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호준 · 이광헌 · 사공정규 · 송창진 · 손인기(2003). 여고생들의 체형변화에 따른 식이태도 분석. **생물치료정신의학, 9(1),** 98-105.

황선희 · 왕성근 · 신윤오(1998). 청소년기 비만 여학생들의 체형만족도와 적응기능. **신경정신의학, 37(5),** 952-96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Anderson, D. R., Huston, A. C., Schmitt, K. L., Linebarger, D. L., & Wright, J. C.(2001). Early childhood television viewing and adolescent behavior: the recontact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 1-147.

Brooks-Gunn, J., Warren, M. P., & Ross, J. T.(1986). The effect of cycle phase on the performance of Adolescent swimmers. *Physician and Sportsmedicine, 14(3).* 182-19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ww.cdc.gov/nccdphp/dnpa/bmi.

Durkin, S. J., & Paxton, S. J.(2002). Predictors of vulnerability to reduced body imag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sponse to exposure to idealized female media image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 995-1005.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Field, A. E., Camargo, C. A., Taylor, C. B., Berkey, C. S., & Colditz, G. A.(1999). Relation of Peer and media influences to the development of purging behaviors among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girl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3,* 1184-1189.

Furman, W., & Buhr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3-115.

Garner, D. M.(1991).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S. K.(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1-15.

Harrison, K.(2000). television viewing, fat stereotyping, body shape standards,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in grade school children. *Communication Research, 27,* 617-640.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 81-89.

Henderson-King, E., & Henderson-King, D.(1997). Media effects on women's body esteem : Social and individual difference fact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 399-417.

Hudson, J. I., Hiripi, E., Harrison, G., & Kessler, R.(2005). *The epidemiology of eating disorder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Meeting of the Eating Disorders Research Society, Tronto, Ontario, Canada.

Jones, A. M., & Buckingham, J. T.(2005).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n Women's Body Imag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8).* 1164-1187.

Levine, M. P., Smolak, L., & Hayden, H.(1994). The relation of sociocultural factors to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471-490.

Lin, L. F., & Kulik, J. A.(2002). Social comparison and women's body satisfac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15-123.

Morrison, T. G., Kalin, R., & Morrison, M. A.(2004). Body-Image Evaluation and Body-Image Investment Among Adolescents: A test of sociocultural and social comparison theories. *Adolescence, 39(155).* 571-592.

Must, A., Dallal, G., & Dietz, W.(1991). Reference data for obesity: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wt/ht2) and triceps skinfold thickness.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3,* 839-846.

Polivy, J., & Herman, C. P.(2004). Sociocultural idealization of thin female body shapes :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6.

Pritchard, M. E., King, S. L., & Czajka-Narins, D. M. (1997). Adolescent body mass indices and self-perception. *Adolescence, 32,* 863-880.

Smolak, L., & Murnen, S. K.(2001). Gender and eating problems. In R. H. Striegel-Moore & L. Smolak (Eds.), *Eating disorders: Innovative directions in research and practice,* 91-10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ice, E.(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 825-848.

Stice, E., & Shaw, H.(2002).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i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eating pathology: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 985-993.

Striegel-Moore, R. H., Dohm, F. A., Kraemer, H. C., Schreiber, G. B., Crawford, P. B., & Daniels, S. R. (2005). Health services use in women with a history of bulimia nervosa or binge eating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7(1)*, 11-8.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8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 246-263.

Thompson, J. K., Coover, M. D., Richards, K. J., Johnson, S., & Cattarin, J.(1995).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female adolescents: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221-236.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ompson, J. K., Heinberg, L. J., & Tamtleff, S.(1991). The Ps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PACS). *Behavior Therapist, 14,* 174.

Thompson, J. K., & Stice, E.(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181-183.

Thompson, J. K., van den berg, P., Roehrig, M., Guarda, A. S., & Heinberg, L. J.(2004).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3):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 293-304.

Tiggemann, M., & Lynch, J. E.(2001). Body image across the life span in adult women: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43-253.

Tiggemann, M., & McGill, B.(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23-44.

Wheeler, L., & Miyake, K.(1992). Social comparis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60-773.

Wiseman, M. A., Gray, J. J., Mosimann, J. E., & Ahrens, A. H.(1992). Cultural expectations of thinness in women: An update. *International of Eating Disorders, 11*, 85-89.

Wittchen, H. U., & Jacobi, F.(2005). Size and burden of mental disorders in Europe - A critical review and appraisal of 27 studies.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15,* 357-376.

□ 접 수 일 : 2008년 04월 24일
□ 심 사 일 : 2008년 07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7월 24일